

경기 급락은 멈춤

~ 경제활동은 서서히 재개하나 여전히 어려운 수준으로 추이 ~

(조사대상 2만 3,681사, 유효회답 1만 1,275사, 회답율 47.6%, 조사개시 2002년 5월)

조사결과 포인트

- 2020년 6월의 경기 DI는 9개월 만에 전월 대비 플러스(2.4포인트)인 27.6으로 나타났다. 국내경기는 경제활동이 재개하여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 급락 경향은 멈추었다. 향후는 후퇴경향이 일시적으로 멈출 것이나 힘없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.
- 전세계에서 저수준의 추이가 계속되었으나 긴급사태선언 해제로 인하여 『소매』 및 『서비스』 등 9개 업계에서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났다. 한편 제조업 등에서 물자 이동이 정체된 『운수·창고』는 악화되었다.
- 2016년 11월 이래 3년 7개월 만에 전 10개 지역에서 하락경향에 제동이 걸렸다. 특별정액급부금의 지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 외에, 6월 19일에 현경(県境)을 넘는 이동제한의 전국적인 해제 등은 지역경제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. 규모별로는 「대기업」「중소기업」「소규모기업」의 악화는 8개월로 멈추었다.

< 2020년 6월의 동향 : 후퇴국면 >

2020년 6월의 경기 DI는 9개월 만에 전월 대비 플러스(2.4포인트)인 27.6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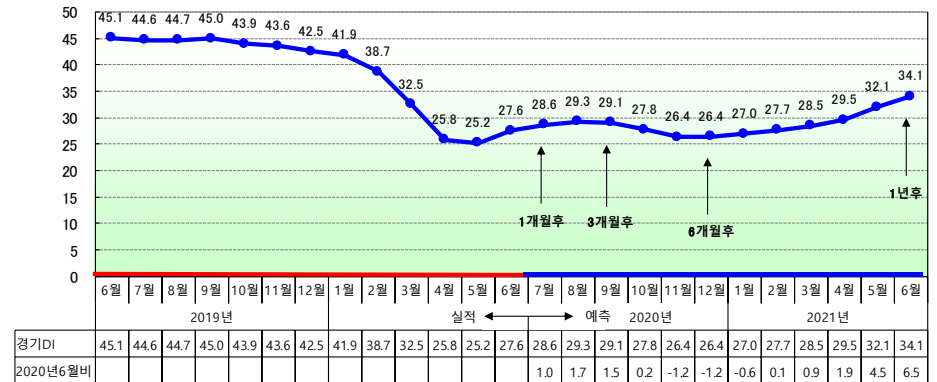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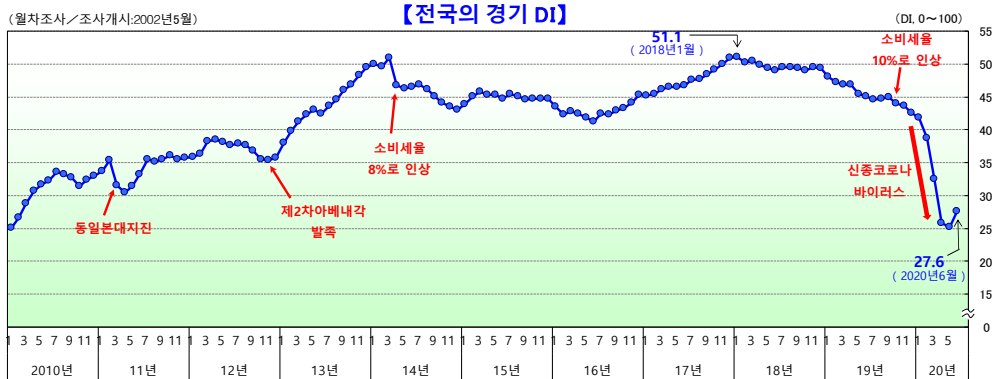
6월의 국내경기는 경제활동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여 하락에 제동이 걸렸다. 특별정액급부금의 지급이 가계지출의 촉진 요인이 된 한편, 음식점 등의 영업재개 및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확대에서 자금마련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었다. 또한 현경(県境)을 넘는 이동제한이 전국적으로 해제된 것도 플러스 요인이었다. 게다가 재택근무의 확대 등 재택자의 증가에 따른 신규수요의 창출도 나타났다. 한편 해외경제의 회복 지연으로 인한 수출의 정체 및 감염대책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있어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수준으로 추이되었다.

국내경기는 경제활동이 재개하여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 급락경향이 멈추었다.

< 향후의 전망 : 일시적으로 하락세 멈춤 >

향후의 경기동향은 감염확대방지에 따른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서서히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. 특별정액급부금 등이 개인소비를 촉진시키는 것 외에, 사업 영위를 위한 각종 조성·보조금 등의 정책효과가 호재가 될 것이다. 또한 생산·출하량 하락으로부터 만회 생산 및 공장의 국내회귀 등은 설비투자를 상향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. 게다가 입국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방일관광의 재개도 플러스 요인이다.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제 2차·3차 웨이브의 도래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다시 정체할 가능성은 최대의 하방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. 기업 업적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 및 임금 인하, 설비투자계획의 하방 수정, 해외경제 동향 등도 우려된다.

향후는 후퇴경향이 일시적으로 멈출 것이나 힘없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.



※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